

# 뇌자극을 이용한 편마비 환자 치료용 가상의 손착각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

VIRTUAL ILLUSION SYSTEM FOR HEMIPLEGIC PATIENTS USING BRAIN STIMULATION AND ITS WAY TO WORKING

연구책임자	구정훈 교수	소속	계명대학교 의용공학과
키워드	편마비치료, 뇌자극, 뇌졸증, 뇌경색, 재활치료, 의료서비스, 재활의학, 증강현실, 의료기기		
적용분야	재활의학, 의료기기		

기술개발 단계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단계	제품화단계	사업화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관련 특허				
뇌자극을 이용한 편마비 환자 치료용 가상의 손착각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일	법적상태
		10-2019-0052591	2019.05.03.	출원

## 기술 개요

- (문제 인식) **편마비**는 뇌졸증이나 뇌경색과 같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는 질병에 등반됨 → 운동 기능장애, 인지 및 지각장애 등 **다수의 장애를 동반**하여 식사, 착·탈의 등의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발생 → 약 66% 신체기능 장애, 약 75% 일상생활 장애를 갖게 됨
  - ▷ 기존 치료 방법 중 마비측 신체 기능회복에 효과가 확인된 거울치료가 있으나 단점이 존재 → 거울과 지면의 각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짐
  - 각이 커질 경우, 거울 속 사지를 보기 위해 비 마비 측으로 체중을 지지→ 몸의 **비대칭** 증가
  - 각이 작아질 경우, 거울 속 상이 **비대칭**되어 마비 측 사지가 움직이는 착각 효과가 감소
  - ▷ 즉, 기존의 거울치료 원리를 이용하되, 몸의 **비대칭**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의 착각 효과를 높일 구현방법의 **필요성**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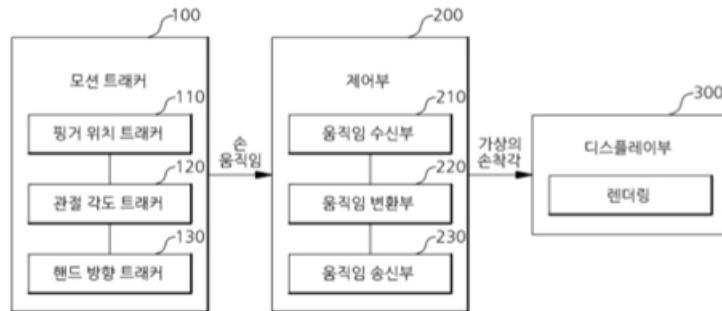
<편마비 환자 재활 치료를 위한 기존의 거울 치료 실시 방법>

- 본 기술은 편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뇌자극을 이용한 편마비 환자 치료용 가상의 손착각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임
  - ▷ **가상 현실(VR)** 또는 **증강/혼합 현실(MR)** 환경을 제공하는 머리 장착 디스플레이(HMD)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환자는 디스플레이부의 움직임 영상만을 통해 재활치료에 임하게 됨

## 기술 특장점

- 환자의 재활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가상 또는 증강/혼합 현실 환경**을 이용한 **거울치료에 뇌파 자극 시스템** 도입
  - ▷ 머리 장착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착용하여 보다 편안한 자세에서 재활 치료를 진행 → 비 마비측 사지와 마비측 사지의 움직임을 착각하는 효과를 극대화함

- ▷ 뇌 감각 인지 기능을 혼란에 빠뜨려 재활 중 발생 가능한 통증을 완화시킴
  - ▷ 환자가 자신의 마비측 사지를 볼 수 없음 → 물입도 향상 → 재활 치료 소요 시간을 단축
  - ▷ 재활 치료 중간에, 뇌파를 분석 →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기능성 뇌파 자극 → 거울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며, 치료의 물입도를 향상
- 본 기술은 **모션 트래커**, **제어부**,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되어, 재활치료에 임하는 편마비 환자의 거울치료 착각 효과와 물입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임
    - ▷ (**모션 트래커**) 비 마비측 손에 장착하여 손가락 끝, 마디 및 손의 움직임 정보 지원 → 3차원적 움직임 정보를 측정
    - ▷ (**제어부**) 감지된 모션을 제1 운동 이미지로 수신 → 반전 처리하여 제2운동 이미지 변환 → 디스플레이부로 제1, 2 운동 이미지 송신
    - ▷ (**디스플레이부**) 머리 장착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뇌파 제어부를 포함 → 제2 운동 이미지를 시청하며 실시간으로 뇌파를 획득/분석하여 적절한 자극을 보냄



<뇌자극을 이용한 편마비 환자 치료용 가상의 손작가 시스템의 기능별 구성>

#### 적용분야 및 관련 시장 동향

- **본 기술 적용 분야 : 재활의학, 의료기기**
-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뇌졸중 전체 인원 53만 8천 명 중 뇌경색 진료 인원이 뇌출혈 진료 인원보다 5.1배 많았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국내 흐름에 따라 앞으로 뇌졸중에 따른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